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우리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소서**
- 시편 119:133 -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찬양: 272.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로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지 끝에서 돌아나는 새싹과 땅 위로 솟아오른 새순과 하나둘 피어나는 꽃에서 봄을 느낍니다. 그 모두가 새롭게 살아보라는 주님의 초대 같습니다. 주님, 우울과 냉랭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온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봄으로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바쁨과 분주함을 핑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외면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51:7 인도자
- ▲ 교 독 문 125. 사순절(2)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 함께
- ▲ 성경봉독 골 1:21~23 1부:인도자/2부:오연훈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I.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중물 찬양대
	II.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청과 찬양대
말 씬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	김기석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393.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잘 살 피십시오. 헛된 욕망과 가르침을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 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꼭 붙들고 사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평화와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터전 삼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 살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곽권희	박재영	김재홍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